

지구마을

제 23 호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대 구 대 학 교 사 범 대 학

< 교 육 목 적 >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 아래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육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함으로써,
만민의 복지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양성한다.

< 교 육 목 표 >

참스승 교육

- 사도교육의 실천
- 교육현장의 이해
- 전문교육의 심화

열린교육

- 교육의 실천화
- 교육의 개방화
- 특수교육의 활성화

지리교육과 교육목표

- 자연·인문지리 현상의 지역성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
- 지리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유능한 지리교사를 양성

목 차

제 1장 . 지구마을 23호를 제작하며	4
지구마을 23호를 펴내며 - 편집부장 안병진	5
2016년을 보내며 - 2016년 학회장 이문수	6
2017년, 여럿이, 다 함께, 다뫏다뫏하게! - 2017년 학회장 정태진	8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10
2016, 2017년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11
2016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4
지리교육과의 2016년	16
제 2장 . 우리가 지교의 새내기다.	18
16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19
MT의 꽃 - 2016 출신출왕	26
제 3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29
여행보단 답사, 뽕뽕 뭉쳐지는 의리 - 16학번 김 휘	30
익숙한 듯 낯설었던 곳, 동해안 - 16학번 김현경	32
3無 5多의 특색을 가진 신비의 섬, 울릉도 - 15학번 김다운	35
대만답사기 - 12학번 이문수	39
제 4장 . 지리 핫 이슈	44

제 1장 . 지구마을 23호를 제작하며

지구마을 23호를 펴내며 - 편집부장 안병진
2016년을 보내며 - 2016년 학회장 이문수
2017년, 여럿이, 다 함께, 다뽏다뽏하게! - 2017년 학회장 정태진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2016, 2017년도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2016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지리교육과의 2016년



지구마을 23호를 펴내며

편집부장 13학번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구마을 23호 편집에 편집부장을 맡게 된 안병진입니다. 제가 편집부장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왕 맡은 거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앞선 선배들께서 만드셨던 지구마을을 전체적으로 보고 부족한 점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여기저기 선배 후배 동기들 도움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한해의 있었던 일들을 추억할 수 있게 책으로 만드는 일이라 어떤 것을 넣어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많은 고민도 했고 처음으로 책을 만든다는 부담감도 많아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편집을 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구마을 23호를 편집하면서 느낀 2016년의 추억들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마을 23호를 완성시킬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 동기 후배님들 전부 감사드리고 2016년에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졸업하는 선배님들 동기님들 축하드리고 새로 지리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17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017년에도 좋은 기억과 추억들,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을 보내며..

16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2학번 이문수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2학번 이문수입니다. 우선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올해를 마무리 지어주신 지리교육과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작년 이맘때 2016년도 학생회장 다짐 글을 적은 것이 었 그제 같은데 벌써 학생회장직에 내려와서 수기를 쓰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다양한 공약사항을 다 지키진 못한 것 같아 학우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저는 저 자신대로 아쉬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상상황이 따라주지 못해 운도 없었고, 능력부족으로 인해 학우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해 나가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한 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대 학생회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학우들과의 소통, 선-후배 간 친목을 저 또한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앞으로 지리교육과 시대에 맞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의 분위기는 혼자가 아닌 전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해주시고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여 과 생활을 하는 학우 분들이 더욱 쾌적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이끌어 나가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년에 좋았던 점은 더 긍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은 올해 집행부가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전대 학생회장으로서 차기 학생회를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뿐만 아니라 학과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은 학우 분들이 의견을 스스럼없이 제시해주시면 더욱 발전된 지리교육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학기 학과장님인 손명원 교수님, 2학기 학과장님인 임석희 교수님을 비롯하여 과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교수님들, 올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힘이 되어주신 전임 학생회 간부 분들, 각 학년을 대표하여 고생해준 지현, 준호, 경서, 정주 과 대의원들 그리고 어쩌면 학생회가 하여야하는, 답사준비를 해주신 송영민 답사준위위원장님 외 답사준비위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 이 글을 후에 편집하여 지구마을을 편찬할 병진이 외 편집부원들,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칭찬하고 지적해 준 모든 학우 분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1년 간 저와 함께 가장 고생한 다인, 승현, 태진, 현아, 동형, 다솜, 계현, 준영, 영욱이 정말 고생했고 고맙습니다. 2017년 올해도 모두들 건강하고 하시는 일 다 잘되길 기원합니다.

2017년, 여럿이, 다 함께, 다뿔다뿔하게 !

17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3학번 정태진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을 역임하게 된 13학번 정태진입니다. 지구마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풋풋한 새내기로 입학하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동기들과 함께 1학년 대학교 생활을 너무나 재밌게 하였었는데 이제 제가 3학년이 되어 학생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2017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니 무탈히 1년을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선배님들의 노하우와 연륜을 잘 배워 학우 여러분들에게 불편함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생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 33대 지리교육과 학생회의 이름은 '다뿔다뿔'입니다. 순 우리말인 다뿔다뿔은 여럿이, 다 함께 가깝게 붙어있는 모양새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올해 지리교육과의 전체원들이 다 함께 붙어서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으로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32대 학생회였던 전년도 이문수 학생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인원과 교수님들, 답사준비위원회와 편집부 임원들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점은 학생의 교육, 임용입니다. 미래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사범대인 만큼 그 경쟁력은 임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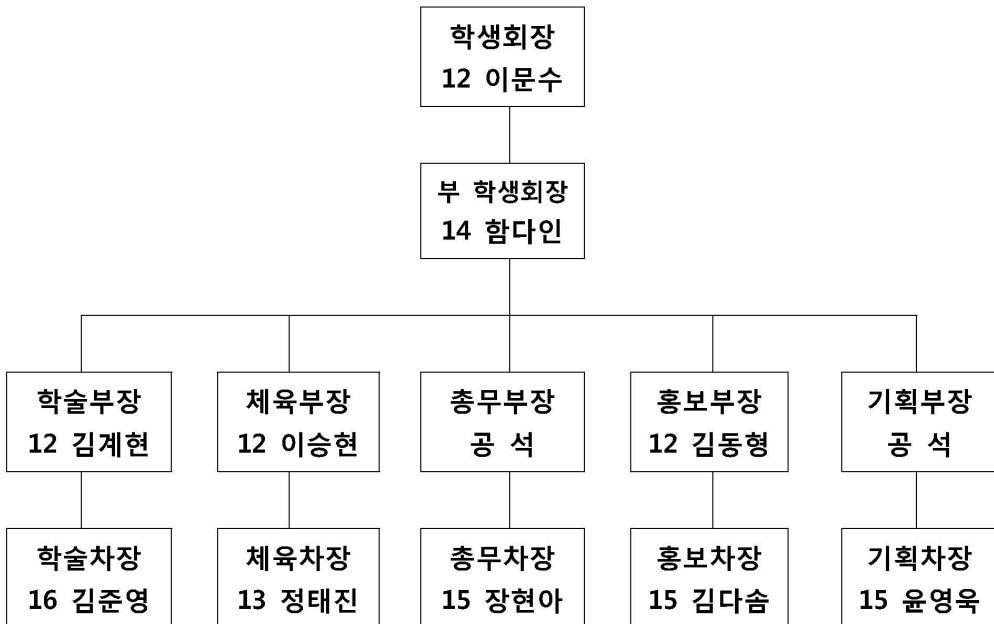
그래서 학우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여러 임용고사의 관한 특강 및 교육 자료 등 아낌없이 지원해 드릴 것이며, 이 외에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평소 불편하였던 점, 개선하고 싶었던 점을 수용하여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리교육과를 만들기 위해 1년간 저를 비롯한 33대 지리교육과 학생회 임원들도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도와 참여하게 된 집행부 인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다함께 다뽏다뽏! 파이팅!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지리교육과 교수진 소개

	<p>최종학력 : (영) UNIV. OF LEEDS 문학박사 (사회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인문지리학, 경제지리, 사회지리, 정치지리 관심분야 : 사회지리학, 경제, 정치지리학, 환경지리학 전공 경력 :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p>
<p>최병두 교수님</p>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지형학 전공) 담당과목 : 자연지리학, 기후학, 자연지리조사법, 토양 및 생물지리, 자연지리교육론 관심분야 : 자연지리 전공(지형학) 습지·하천 생태 경력 : 대한 지리학회 이사, 한국지형학회 이사</p>
<p>손명원 교수님</p>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인문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한국지리, 도시지리, 인구지리, 인문지리교육론, 지역개발론 관심분야 : 도시지리학 전공 경력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역임</p>
<p>임석희 교수님</p>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지리교육 전공) 담당과목 : 지리학입문, 문화지리, 관광지리, 지리교육론, 지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관심분야 : 지리교육학, 관광 지리학 전공 경력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편집부장, 대한 지리학회 홍보이사</p>
<p>오정준 교수님</p>	 <p>최종학력 : (영) UNIV. OF BRISTOL 철학박사 (사회정책학 전공) 담당과목 : 사회지리, 세계지리, 지도학과 GIS, 인문지리조사법 관심분야 : 인문지리 전공/ 사회지리, 도시재생 경력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p>
<p>이영아 교수님</p>	

2016년도 집행행부



2017년 집행부 소개 및 포부

부 학생회장 - 15학번 심민경

안녕하십니까! 지리교육과 15학번 심민경 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학회장선배를 도와 지리교육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것이며, 신입생 여러분의 편안한 학교생활과 빠른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리교육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문화체육부장 - 13학번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부장 김영범 입니다. 올 한해 재미있게 지내보아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은 문화체육차장한테 해주세요.

문화체육차장 - 15학번 윤영욱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생회 문화체육차장을 맡게 된 윤영욱 입니다. 목표는 체육대회 축구 우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임용부장 - 13학번 김선준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교육임용부장 (학술부장) 직책을 맡게 된 13학번 김선준 입니다. 일 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임용차장 - 14학번 정민기

안녕하세요, 교육임용차장 정민기입니다. 17년도 한 해 만큼은 진저리나게 즐거웠으면 합니다. 14학번 잘 놀아 주세요.

홍보차장 - 16학번 이선경

안녕하세요. 이번 집행부의 홍보차장을 맡은 이선경입니다. 이번 한 해 열심히 우리 과에 도움이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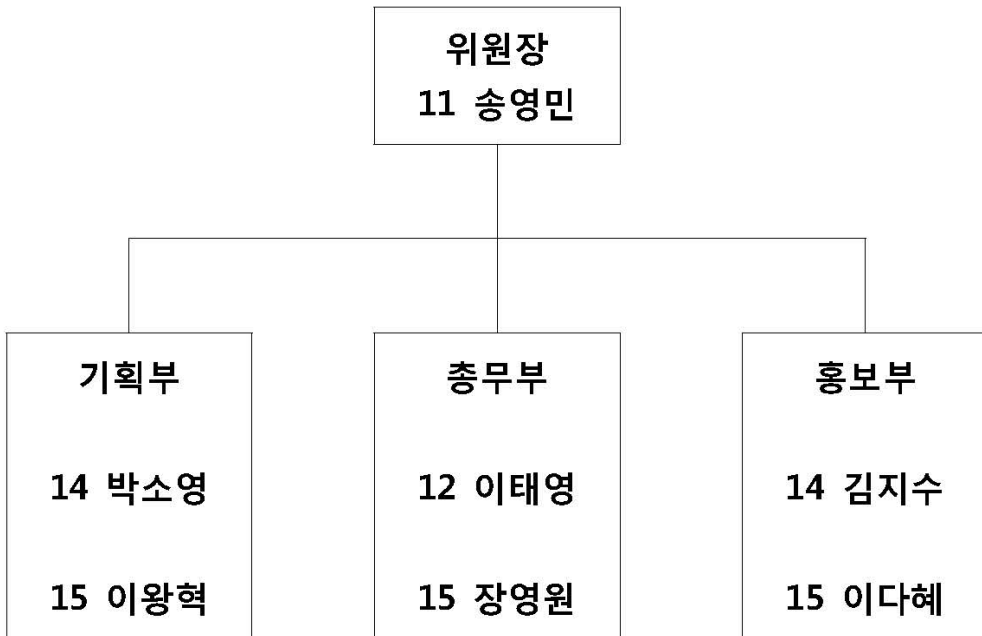
총무부장 - 13학번 박세황

안녕하세요! 이번 17학년도 집행부 총무부장을 맡게 된 13학번 박세황입니다. 새내기 학우분들이 학과생활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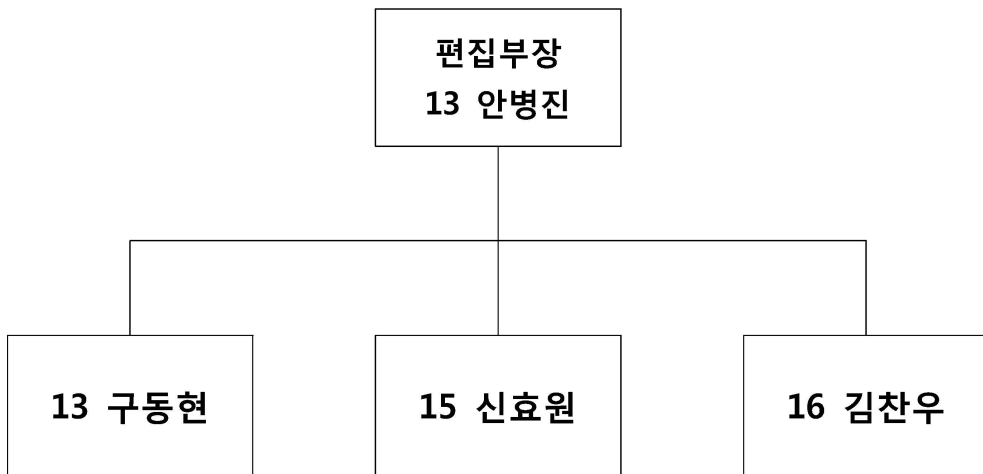
총무차장 - 16학번 김현경

안녕하세요! 올 해 학생회 총무차장을 하게 된 16학번 김현경입니다. 드디어 성인이 되신 걸 축하드려요! 올 한해 공부는 하지 말고 실컷 노세요~!

2016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



2017년도 편집집행



지리교육과의 2016년



신년 산행

1월16일 2016년의 첫 행사로 교수님과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함께 구미 천생산으로 신년 산행을 다녀오며 한 해의 무사를 기원했습니다.

졸업식

2월 15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리교육과 식구들이 모여 졸업하는 선배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입학식

2월 26일 16학번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종합 M.T



3월 18일 ~ 19일 경북 포항으로 종합 M.T를 다녀왔습니다. 지리교육과 학우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자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신입생 페스티벌

새로 입학한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 3월 25일 신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입학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문 체육대회

4월 2일 교수님들과 졸업하신 선배님들, 학부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범대학 출범식

4월 4일 사범대학 출범식 행사에 참여하여 새로이 선보이는 사범대학 학생회장들의 포부를 보았습니다.

대 동 제

5월 25 ~ 27일 대구대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과도 주막을 열어 선후배가 모여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춘계 정기학술 답사

5월 30일 ~ 6월 1일 총 2박 3일에 걸쳐서 경기도 일대로 춘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지에서 열심히 보고 느끼고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계 정기학술 답사

9월 22일 ~ 25일 각 학년 별로 1학년 경주·울산일대, 2학년 울릉도, 3학년 대만으로 추계 학술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졸업생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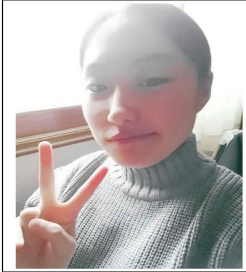
12월 7일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2장 . 우리가 지교의 새내기다.

16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M.T의 꽃 - 2016 춤신춤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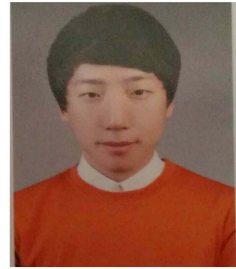
16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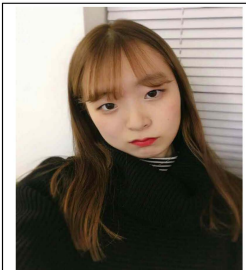
강미현

조용하지면서 똑 부러지는 성격.
동기 여자아이들과 다수의 선배들의 애정을 받고 있다.

아재드립의 최강자.
많은 이의 원성을 사지만 굴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김도형



김소정

마른 몸매와 달리 엄청난 먹성을 가진 친구이다.
자신은 부정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식가.
자칭 지교 비타민이다.

동기 중에 제일 허가 짧은 아이.
사실 이젠 허가 짧은 건지 긴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축구 동아리 베히모th— 소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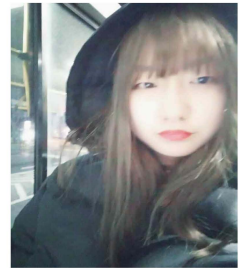
김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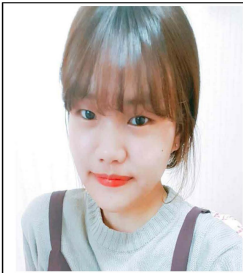
김준영

완벽을 추구하지만 항상 느릿느릿하고 느긋하다.
그래서 늘 많은 친구들의 재촉을 받는다.
(살짝 아니 엄청 답답한 성격)

동기들 중 잠꾸러기 원 탑.
잠꾸러기면서 금요일만 되면 새벽같이 서울 집으로 가는 친구이다.
말투가 사근사근 예쁘지만 사실 말투만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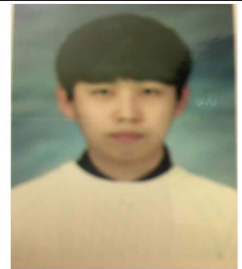
김지우




김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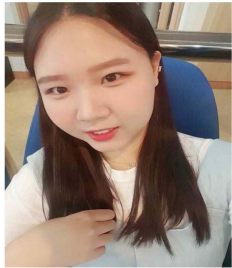
소문난 드라마쟁이.
보는 드라마가 바뀔 때마다 이상형도 바뀐다고 한다.


입이 매우 험한 친구이다.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의 구분이 뚜렷한 편.
친해지면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이다.




김찬우

	<p>자칭 대구 현아. (판단은 그대들의 몫...) 첫인상은 세보이지만 알고 보면 여린 모습이 많다. 성격이 털털하고 백만불짜리 이마를 가지고 있다.</p>
<p>김현경</p>	

<p>말투에서부터 애교가 철철 넘치는 모태 애교쟁이. 포동포동한 볼살이 포인트이다.</p>	
	<p>김효영</p>

	<p>멀끔하게 생긴 외모와 달리 매우 엉뚱하다. 이성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p>
<p>김 휘</p>	

<p>1학기만하고 홀연히 해병대로 사라진 친구. 그는 멋있게 장학금을 양보하고 떠났다..☆</p>	
	<p>문현성</p>



박건태

지교 헛소리 대마왕.
엄청 말랐지만 마른 돼지이다. 친구들의 음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얼굴에 특징이 뚜렷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소심한듯하지만 필요할 때는 매우 적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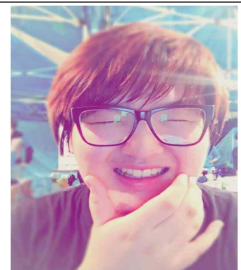
박상욱



박아름

16학번의 구원투수.
동기들에게 거침없는 직구를 날려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같이 셀카를 찍으면 꿀잼이다.

덩치는 있지만 여성스러운 면이 많다.
학년 초 김태우를 닮은 외모로 이목을 끌었다.
아주 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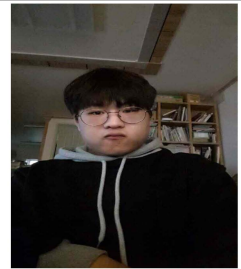
박정현



손혜원

1년에 머리색을 7번을 넘게 바꾸는 카멜레온이다.
염색에 대한 질문은 이 친구에게 하면 좋다.

여름방학 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엄청난 변신을 해서 왔다.
아는 것이 많은 똑똑한 친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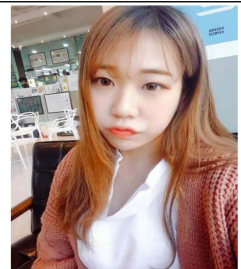
윤우섬




윤이슬


16학번의 맏언니지만 친구 같은 언니.
많은 여자 동기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상담사 역할을 한다.


제주 사람인데 제주 사투리를 쓰지 않아 많은 동기들의 놀라움을 샀었다.
애교가 많고 아주 여성스러우며 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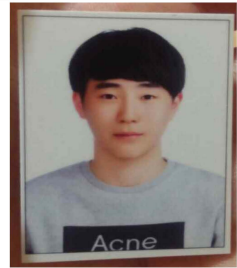
윤지원

	<p>16학번의 일꾼. 전형적인 외강내유 스타일이라서 알고 보면 여린 면이 많다. 얼굴이 쪼그맣고 목소리가 아주 많이 크다.</p>
<p>이선경</p>	

<p>애 같은 면이 없진 않지만 친구를 좋아하고 착하며 의리가 있다. 무뚝뚝한듯하지만 은근히 싹싹한 면이 많다.</p>	
	<p>이성빈</p>

	<p>공대생같아 보이지만 뺏속까지 지교인이다. 진지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웃기고 웃음이 많은 사람</p>
<p>이인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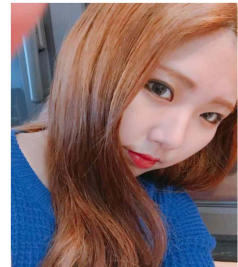
<p>자주 덤벼거리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린다. 그래서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귀엽고 순수한 면이 많은 친구.</p>	
	<p>전민홍</p>



조정수

축구 동아리 베히모스 소속.
정말 날쌔다. 너무 날쌔서 추계 학술 답사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등산, 하산을 했었다.

요리를 잘 하고 현모양처 스타일.
최근에 예쁜 하얀 고양이를 키웠지만 비염으로 인해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최수영



한석원

여자 동기들의 옷 단속을 도맡아하는 친구.
매력이 넘치는데 여자 친구가 안 생겨서 안타깝다.
(매력을 알아차리려면 최소 이들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티 나지 않게 과에 도움을 준다.



한승주

M.T의 꽃 - 2016 춤신춤왕

MT 장기자랑 소감문

16학번 김 휘

저는 대학이라는 목표가 생긴 몇 가지 이유 중에 MT를 가고 싶어서라는 조금은 이상하고도 평범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MT는 Membership Training이라는 약자를 가진 만큼 학과의 학우들끼리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그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서로 협동하여 밥을 만들어 먹거나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꿔온 MT를 더욱 재미있고 선후배들 끼리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하거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아무리 잘하려 해도 맛이 없고 게임을 아무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장기자랑인데 이 또한 노력해도 못할까봐 조금 겁이 났었습니다. 장기자랑 연습을 처음 했을 때 엄청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자랑 팀이 되었던 저의 동기 석원 이와 미현이 그리고 이슬이 누나가 춤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가르쳐 주었고 같이 시간을 내서 틈틈이 같이 연습하며 아이디어를 내었기에 저는 연습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망의 MT날 저희는 실제로 고등학교 당시 입었던 교복을 입고 여자 아이돌 춤을 칼군무로 댄고 소주 한 병을 한번에 마시는 다소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학우들의 시선을 끌었고 마지막으로 막춤을 정신없이 댄습니다. 이렇게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었던 연습시간이 6분 남짓하는 시간에 끝나니 아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등수와 상관없이 학우들과의 소중한 기억에 오래 남을 시간을 만들자는 일념으로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장기자랑 1등을 해서 과일을 얻었을 때는 어안이 병병하면서도 우리의 일념이 성공을 이뤘구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자랑을 통해 더욱 재미있었던 시간, 더욱 돈독해졌던 시간이 되어서 매년 MT가 있을 때 장기자랑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똥스똥스 춤잔치>

16학번 김소정

엠티를 가기 전, 엠티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장기자랑 시간을 위해 우리 조 친구들은 열정을 불태웠다. 동기들과 함께 수업 사이사이 빈 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뒤 밤늦게 까지 빈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연습에 매진했다. 우리 조는 소녀시대의 'Gee'와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이 노래들이 엠티를 갔던 2016년보다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나와서 호응이 별로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렇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살짝 긴장해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소리도 질러줘서 괜히 뿌듯했다. 더 기분 좋았던 것은 우리조가 2등을 했다는 것이다. 상품도 타고 우리가 연습한 노력을 보상 받는 느낌을 받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대면식 때는 선배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나름 학교에 적응하느라 동기들과도 친해지기 어려웠었는데, 엠티를 통해 선배들과 동기들과 더 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 3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여행보단 답사, 뚝뚝 뭉쳐지는 의리 - 16학번 김 휘

익숙한 듯 낯설었던 곳, 동해안 - 16학번 김현경

3無 5多의 특색을 가진 신비의 섬, 울릉도 - 15학번 김다운

대만답사기 - 12학번 이문수

여행보단 답사, 똑똑 뽐내지는 의리

16학번 김 휘

처음 답사를 가는 설렘을 가득 안고 단양의 온달 동굴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동굴은 거대한 높이를 자랑하고 박쥐들이 매달려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온달동굴은 쭈그러 앉아서 지나가야 될 만큼 좁고 어두컴컴하였습니다. 이전 고등학교 때 교과서의 글과 그림만 보고 배웠던 석회동굴과 중유석, 석순, 석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기도 하니 이론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항상 석회암이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고 글로만 보다가 버스로 이동하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설명을 해준 덕분에 직접 돌을 깨는 모습도 보고 공장도 본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주 오일장에 가보았는데 유명브랜드와 카페 등이 들어선 중앙로와 성설시장인 제일 시장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특이해 보였고 특히 상점들의 간판들이 전부 한글간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생소했지만 영어보다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둘째날 남한산성에 도착하기 전에 답사지를 읽고 도성을 지키던 성이었으며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군과 대치하여 격전을 벌인 역사적인 산성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나서 보게 되니 이 높은 성벽을 청나라 군이 포위하여 장기전을 펼쳤겠구나 하며 산성을 올랐습니다. 산세를 그대로 이용한 성이라서 그런지 급경사가 있어 오르는데 힘이 좀 들었긴 했지만 중간에 수어장대에서 쉬어 땀을 식히고 교수님이 병자호란때 인조가 피신한 곳이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더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었는데 다른 관광지에서처럼 설명하는 글이 근처에 많이 기재되어있었으면 그곳이 얼마나 더 의미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산 다문화 특구에 가보니 여주오일장의 간판과는 다르게 여러 나라의 언어가 쓰여져 있는 간판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인력사무소나 이주민센터, 외국인인을 위한 법률사무소, 관광여행사 등 보통 흔히 볼 수 없던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안산의 다문화 특구의 외국인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업들이 여러 지역에 더욱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나가며 다양한 언어들이 들리고 다양한 인종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세계화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시간에 세미나를 통해 설문조사와 활동조사를 발표하는 시간에 같은 주제라도 연령대별로 답이 다르고 교통과 인간관계, 시설 등 초점을 다르게 맞추어 다양한 의견과 결과가 나와서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제주도에 갔는데

그냥 바다에 있는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해할 현상으로 생긴 바닷길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연이 만들어낸 길이라는 것이 감탄스러웠습니다. 그 바닷길로 제주도에 가서 매바위를 보았는데 그냥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 시스텍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스텍을 보니 웅장한 크기라고 생각했는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은 넓은 갯벌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처음으로 갯벌을 경험해보아 여러 생물들을 보고나서 자연의 보고, 생물들의 터전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옥구공원에서는 설명을 듣고 안 사실인데 사실 주변의 산들은 다 섬이었고 주변의 평평한 지형은 간척했다는 것이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섞여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주거공간과 공업단지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는 모습은 주거공간과 공업단지만 있는 제가 사는 곳과 비교도 해보며 직접 사진도 찍어보니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사를 통해 이론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모자랐던 경험적인 측면을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답사를 더욱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사가 더 기대됩니다.)



익숙한 듯 낯설었던 곳, 동해안

16학년 김현경

2016년 9월 22에서 23일 이틀 동안 지리교육과의 꽃인 답사를 다녀왔다. 학기 초에 선배들과 함께 다녀온 춘계학술답사에 이어 이번에는 동기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답사를 갔다.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는 동해안이 멀고 낯선 곳이었지만 대구에 살고 있는 나에게 동해안은 가깝고 익숙한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평소 가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가보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답사를 시작했다.

우선 첫날 일정은 경주에서 시작했다. 경주에서의 첫 번째 답사지는 경주의 양동마을 이었다.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로 이루어진 집성촌인 양동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평소 하회마을은 여러 번 방문했지만 양동마을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살짝 우중충한 날씨와 함께 양동마을에 도착하니 살가운 강아지들이 젤 먼저 우리를 반겨주었다. 강아지들을 뒤로 하고 보인 마을 풍경은 평지에 위치한 하회마을과는 다르게 산등성이에 위치한 모습이였다. 이곳의 풍수 지리적 가치를 보기 위해선 성주 봉에 올라 전체적인 마을의 모습을 보면 된다. 성주 봉에 올라보니 탁 트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 마을은 뒤쪽의 설창 산을 주산으로 앞쪽에는 양동천이 흐르며 이 양동천은 양동마을의 대표가옥인 '서백당', '무침당', '향단', '관가정' 등의 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맥우수지'의 역할을 한다. 또한 마을입구 좌측의 산은 '수구막'의 역할을 해 좋은 기운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나가게 한다.

두 번째 답사지로 엑스포 공원과 남산 둘레 길에 갔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은 문화를 통한 새로운 시대개혁의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다. 공원 내에는 황룡사 목탑을 음각으로 디자인한 모습의 구조물이 있다. 또한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남산은 세계문화유산이며 문화재 보호 관리 측면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리 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산책로 코스가 아닌 문화재를 찾아가며 오르는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하지만 산을 오르며 하나씩 보이는 문화재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현재 훼손되어 있는 것이 많아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수 남산 둘레길 정상에서 단체사진



경주 엑스포에서 단체사진

이어서 둘째 날 우선 포항의 호미곶으로 갔다. 곶이란 육지에서 바다를 향하여 돌출된 곳을 명칭 하는 것으로 해식애와 등대를 볼 수 있다. 호미곶은 바다로 돌출되어 있어 아름다운 일출이 유명한 장소 인만큼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일출을 보았던 추억이 있는 장소이다. 세 살 무렵 그곳에서 새천년의 희망찬 미래를 뜻하는 조형물인 '상생의 손'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같은 장소,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 보았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나만 훌쩍 커서 이곳에서 답사를 하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포항을 지나 이번에는 울산으로 갔다. 제일 먼저 감포의 주상절리를 보았다. 일반적인 주상절리는 서있는 모양으로 화산 지형 주변에 위치해 있지만 감포의 주상절리는 누워있는 모양이며 주변에 다른 화산 지형은 없는 특별한 주상절리이다. 누워있는 형태의 주상절리는 처음 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을지 매우 궁금해졌다.



감포 주상절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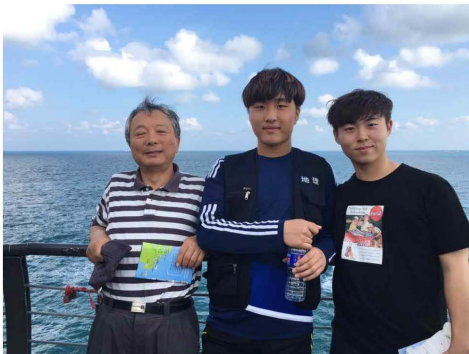
주상절리를 지나 고래마을로 갔다. 울산만 연안에 있는 포구인 장생포에 위치한 고래마을은 과거 유명한 포구였지만 현재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현재 고래잡이를 이용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울산 지역의 특별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노력이 축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마을을 둘러보니 실물크기의 고래를 형상화 해두어서 고래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도 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옛 어민들의 생활환경을 그대로 묘사해두어서 마을에서 빌려주는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둘러보기 좋을 것 같았다.



울산 고래마을에서 체험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대왕암 공원을 가보았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도 유명한 대왕암 공원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여 붉은색의 암석과 파랑과 해풍에 의한 침식 지형이 발달 되어있다. 암석들과 함께 어우러진 산책길을 올라가면 양 옆으로 드넓은 바다와 암석에 부딪히는 파도들을 볼 수 있다. 도시 속에서 매연과 시끄러운 소음에 둘러싸여 살다가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소리를 들으니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동기들과 함께한 답사를 마쳤다. 선배들 없이 동기들끼리 간 답사라 허술한 설명과 꼼꼼하지 못했던 계획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추억을 가졌고 동해안을 익숙한 곳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았다. 답사에 대해 그저 설레게만 생각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사전에 답사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가서 좀 더 유익한 답사를 해야겠다.



대왕암에서 교수님과 함께



울산 대왕암의 모습

3無 5多의 특색을 가진 신비의 섬, 울릉도

15학번 김다운

울릉도는 북위 37°29', 동경 130°54'에 위치한 오각형 형태의 섬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다. 연평균기온은 12.3°C, 연평균강수량은 1,236.2mm(평균값 기준)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며 특히 겨울철 강수량이 높게 나타난다. 섬 전체는 신생대 제3기에서 제4기 초에 걸친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종상화산으로 섬의 중앙부에는 최고봉인 성인봉(984m)이 위치하고 그 북쪽 비탈면에는 칼데라화구가 무너져 내려 생긴 나리분지와 알봉분지가 위치한다. 울릉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화산체로 평지가 거의 없고 해안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울릉도는 섬 대부분의 경사가 급하고 평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총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15%에 불과하며 대부분 밭으로 이용된다. 과거 옥수수·감자·보리·콩 등을 재배하였으나 현재는 미역취·부지깽이 같은 산채와 천궁·더덕·작약 같은 약초를 많이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주민의 절반정도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근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오징어·꽁치·명태 등이 많이 잡히며, 오징어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울릉도 역시 관광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울릉도는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생긴 화산섬으로 육지에서 130.3km (최단거리 : 경북 울진 죽변) 떨어져 동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울릉도는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울릉도는 육지와 전혀 다른 기후와 지형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신비의 섬이라고 불려왔다. 울릉도는 태고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쉬는 동해 유일의 도서군이다. 용출수, 원시림, 기암괴석 등의 자연자원이 분포하며, 향나무·후박나무·동백나무를 비롯한 65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39종의 특산식물과 6종의 천연기념물이 분포하며, 흑비둘기 등 62종의 조류(털새 24종, 철새 38종)가 서식하며 조화를 이루는 동식물의 보고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지리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 '울릉도'라는 명칭은 매우 익숙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울릉도와 관련된 지식들을 이론으로만 배우고 실제로 울릉도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2학년에 가는 울릉도 학년답사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울릉도 학년답사의 일정은 2박3일의 일정이었다. 첫째 날에는 학교에서 포항 여객선터미널로 이동하여 썬라이즈호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한다. 이 때 전날까지 계속된 태풍의 영향과 파도의 방향과 배가 이동하는 방향이 달라 이동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뱃멀미로 매우 힘들었지만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 후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고 버스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며 울릉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첫날의 일정은 끝났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울릉도는 기후와 지형적 특징 때문에 문화적 경관이 육지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우데기가 있고 이외에도 무덤의 형태나 택시의 모습도 육지와 매우 상이했다. 육지와 다른 울릉도만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해안 도로를 따라 섬의 외곽지역을 답사한 것과 달리 본격적으로 섬의 내부를 답사했다. 섬의 중앙부에는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984m)이 위치해 있는데 이를 등산하여 직접 섬 내부로 이동했다. 등산로가 가파르고 험소하여 약간 불안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전원 무사히 등산을 마쳤다. 성인봉 등산이 힘들기는 했지만 정상에서 울릉도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평소에는 보기 힘든 자연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하산해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고 해안 산책로를 걸으면서 울릉도의 해안지형을 답사하는 것으로 둘째 날의 일정은 끝난다. 특히 산책로는 대표적인 해안지형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 날에는 울릉도 유람선을 통해 해상답사를 한다. 해상답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당연 코끼리 바위(공암)이다. 특히 주상절리가 잘 나타나있기 때문에 주상절리를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 매우 신기했다. 해상답사 이후에는 다시 썬라이즈호를 타고 포항여객선터미널로 이동한 뒤 학교에 도착하는 것으로 울릉도 학년답사의 모든 일정을 끝이 난다.



울릉도는 '신비의 섬'이라는 명칭이 걸맞은 곳이다. 육지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육지의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밑의 사진은 내가 울릉도 답사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다. 성인봉을 향해 등산할 때 찍은 사진으로 울릉도 숲의 모습과 가파른 경사를 담으려했다.

2학년 학년답사를 포함해 총 4번의 답사를 했고 그 중 울릉도 학년답사는 단연코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그만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답사였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니 약간은 힘들겠지만 답사를 통해 꼭 배운 이론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론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알고 있는 각각의 이론들을 연결해 생각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대만답사기

12학년 이문수

대만은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일본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나라다. 최근 발달한 SNS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고, 물가가 중국, 일본, 한국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 역시 대만을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았다.

9월 22일 저녁, 대만을 가기 위해 우리는 대구국제공항에 바로 집결하였다. 우리나라도 아직 여름의 무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원한 옷차림을 하고 출국수석을 밟았다. 대구공항의 면세점은 규모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미리 주문을 하여 공항면세점에서 찾아가는 식의 쇼핑을 하고 눈으로 둘러본 후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몇 번 타보았지만 자주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행기가 뜰 때의 기분은 신선했다. 두 시간 가량을 날아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하였고, 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무더울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한국과 비교해도 많이 무더운 편은 아니었다. 한국시간으로 약 밤 11시, 대만시간으로는 밤 10시에 도착하였고,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인원파악이 되지 못하여 약간의 귀증을 듣기도 하였다. 버스를 타고 대만 주도 프라자 호텔에 이동하였는데 버스는 우리나라 버스와 달리 2층 버스로 되어 있었는데 1층에는 넓은 공간의 트렁크가 있어서 짐을 편하게 싣고 찾을 수 있었다. 호텔 도착시간은 대만시간으로 약 11시쯤 되었다. 각자 방을 배정 받고 잠시 호텔 주변을 서성거린 후 다시 방에 돌아와 첫 날밤을 보냈다.

대만 주도 호텔에서 3일 밤을 묵었는데 3일치 아침식사 쿠폰을 받았다. 처음 올 때부터 대만 음식은 향신료의 향이 강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왔지만 나는 동기들과 함께 현지식으로 버텨보겠다고 다짐하였고 그 꿈은 첫 아침식사 때 깨져버렸다. 물론 향신료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빵이나 향이 약한 대만 현지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호텔식조차 입맛에 맞지 않을 정도였다. 식사를 마치는 대로 모여서 화롄으로 가기 위하여 타이페이 역으로 갔다. 가는 동안에 버스에서 대만의 도로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V에서 동남아 사람, 특히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본 적이 있는데 대만에서도 오토바이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니 신기했다.

대만의 기차는, 특히 시내부근에서는 지상에서 다니기 힘들어 어느 특정구간은 지하철 마냥 지하로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화롄지방은 대만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대만의 국제 항구 중 하나로 타이루거 공원 관광의 거점도시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리석의 채석지이기도 하다. 기차에서 하차한 후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식사는 대만 현지식으로 나왔는데 나는 입에 맞지 않아 입에 맞는 몇 가지 음식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타이루거 협곡이었다. 타이루거 협곡은 국립공원으로 쑹양 산맥에서 태평양으로 흐르는 리우시 격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이다. 지질의 대부분이 대리석이며, 산과 산의 절벽이 닿을 듯이 가깝다. 너무 넓은 국립공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잠시 내려 함께 걸으며 협곡의 웅장한 모습



장춘사 단체사진

을 눈에 담았다. 비가 한참 많이 오다 그쳐서 그런지 물이 굉장히 탁했는데, 우리가 걸어난 협곡쪽으로는 옥빛의 물이 흘러 내렸다. 탁한 물줄기와 옥빛의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점부터 다시 탁해지는 물줄기가 아쉬운 장면으로 남아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태로각 협곡 입구에 위치한 장춘사에 내려서 단체사진을 찍고, 대만 8경 중 한 곳인 청수단애를 본 후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대만에 남아있는 부족 중 가장 규모가 큰 아미족의, 공연을 관람하는 곳이었다. 우리말고도 한국에서 온 다른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대만인들은 보이지 않았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선견지명으로 마지막에 선물을 따로 사는 시간허비를 하지 않고 바로 저녁 식사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저녁식사를 한 곳은 점심을 식사한 곳 보다 더 향신료 향이 강했다. 그래서 처음 제공되는 자스민 향이 나는 물에 밥을 말아먹고 나와 버렸다.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숙소로 바로 돌아왔는데 이른 저녁시간이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자유타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 시내로 걸어 나갔다. 처음 시내에 들어섰을 때 하얗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걸어 나갔다. 걸으면서 느낀 점은 어느 곳이든지 과일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열대와 열대가 함께 나타나는 기후를 가진 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과일들이 참 많았고, 저렴한 가격에 과일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특히 용과와 애플망고는 굉장히 달고 맛이 좋았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친구와 함께 맥도날드로 향했다.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햄버거 가게로서 기본적으로 세계적 공통 메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불고기 버거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맛 볼 수 없는 메뉴가 존재하는데 대만에서 역시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대만 현지식에 크게 데어보아서 그냥 무난히 빅맥세트를 먹고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섰다. 대만편의점도 한국의 편의점처럼 조리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대만 편의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만 음식의 향을 버텨낼 비위가 필요한 것 같았다. 대만에서 꼭 마셔보라는 대만 18일 맥주와 함께 주도 호텔 앞에 대만식 닭튀김인 지파이를 사들고 방에 와서 친구들과 하루의 피로를 보낸 후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세 번째 날은 유독 날씨가 맑고 쾌청하였다. 처음으로 간 곳은 양명산이라는 화산이었다. 산에는 안개로 자욱하였고 굉장히 쌀쌀했다. 다들 얇은 옷차림이었는데 정상의 온도는 지상과 약 10도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차장 쪽에서 우리가 볼 소유갱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자 유황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곳곳에 끓어 올라오는 온천수를 볼 수 있었으며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땅에서 연기를 내뿜는 곳도 있었다.

양명산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야류해안국립공원이었다. 우선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식사부터 하였다. 바닷가에 위치한 식당이어서 그런지 해산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향신료 향은 향신료 향대로 나고 비린내는 비린내대로 나서 식사하기 힘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야류해안국립공원을 둘러 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고, 책에서만 보던 신기한 암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 바위들은 긴 세월 해식과 풍식 작용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이었고 촛대바위, 두부바위, 여왕머리바위 등 바위의 모양을 본 따 이름이 지어져있었다. 관광지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바위의 생김새를 이름으로 따는 것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같은 것 같았다. 인상 깊은 것은 한국의 해안가에서 보기 힘든 수평선이었는데 야류는 태평양바다와 맞닿아 있으며 섬이 없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보이는 파도가 작아보여도 해안가에 도달하면 굉장히 큰 파도가 되어 오기 때문에 바닥에 빨간 안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지우편으로 향했다. 지우편은 1900년대 초 금광도시로 유명한 곳이었다. 시간이 지난 후 폐광촌으로 전락하였다가 대만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이후 다시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다. 특히 지우편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는 설이 있는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펼치는 곳이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산제라는 골목만 돌아 보았는데, 지산제는 지우편의 가장 변화한 먹거리 골목길이다. 골목을 따라 상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용품을 파는 곳도 많았다. 가이드 선생님의 추천으로 땅콩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맛보았는데 조리법이 신기하였다. 취두부를 파는 골목에서는 지옥을 경험하였다. 오후시간대라 사람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얼마 보지 못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그 이후 저녁식사를 하여 딤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왔다. 샤오롱바오라는 만두피 안에 육수가 든 만두와 함께 각종 딤섬과 볶음밥을 먹었는데 그나마 향신료 향이 강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지우편에서 잠깐의 불미스러운 일을 마무리하고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베이징 고궁 박물관을 모체로 삼고 있다. 중국의 송, 원, 명, 청 네 조의 궁정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품의 수가 너무나 방대해 연중 6,500여점씩 수차례 교체하며 전시 중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입장하면 모두에게 헤드폰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단체사진

을 나누어준다. 개인의 헤드폰은 각 여행사 가이드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어 각 작품의 설명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옛날 당나라 미인상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한국 박물관에서 볼 수 없던 유물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도착한 곳은 타이베이 101이라는 대만의 랜드마크에 도착하였다. 한국의 63빌딩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웅장하였다. 전망대를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고속 엘리베이터라 그런지 금방 올라갔다. 고소공포증이 있는지라 남들처럼 창가를 가서 조망하지는 못하였지만 대만의 시내야경은 한국의 시내야경과 비슷했다. 특히 독특한 볼거리는 전망대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한 거대한 원형의 공이다. 이는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건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층에 설치하는 공기제동기인데, 직경이 5.5m, 무게가 660톤이다. 이 원형의 공은 타이베이 101빌딩이, 지진이 잦은 대만에서 이렇게나 높은 빌딩을 짓는데 핵심적인 구조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계단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 야외전망대 까지 가서 야경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라오허제 야시장을 가게 되었다. 처음 일정은 스린 야시장을 가는 것 이었지만, 가이드 선생님이 루트와 현지상황을 종합하여 수정하게 되었다. 라오허제 야시장에도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한국관광객보다 대만 현지인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대만에서 꼭 먹어 보라던 망고빙수는 굉장히 달고 맛있었다.

한국에 최근 성행하는 야시장 들도 다 대만이나 동남아의 야시장 문화를 도입하여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새롭게 느껴졌다. 야시장을 둘러본 후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씻고 바로 대만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총렬사 위병 교대식

마지막 날은 일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다. 숙소를 나오고 답사지를 둘러 본 후 대만을 떠나기 때문에 모든 짐을 챙겨서 버스에 탑승했다. 그리고 총렬사로 향했다. 이곳은 대만의 호국영령을 기리는 곳이며 최고의 위병 교대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교대시간에 거의 맞춰 도착하였기 때문에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았는데 바로 시작했다. 약 30분간 가랑 이루어지는 모습이 약간 아버지에게 들은 옛날 군대같은 느낌이었다. 너무 딱딱한 모습에, 이렇게 더운데 굳이 이렇게 제식을 하여야 하는가 의문이 들었지만 반대로 이게 진짜 군인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뷔페식 점심을 식사한 후 일정이 모두 끝이 났다. 다시 입국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해 입국하기 위해 수속을 밟았고 남은 시간에 거대한 규모의 타이페이 공항 면세점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정해진 시간에 모두 모여 대국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서 이글을 적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보다 자연지리적으로, 타이루거 협곡과 같이 웅장하고 야류해상공원같이 볼 수 없는 지형을 접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 인문지리 적으로는 관광, 도시지리적으로 답사한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이 다른 관광대국에 비하여 많이 모자란 점, 그리고 내가 보는 안목이 많이 부족해서 이겠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일본이는 대만이든 한국이든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친구 말로는 대만 도심부근에는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점이 많다고 하지만 답사를 다녀온 경험만 가지고는 다시는 대만 음식을 접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장 . 지리 핫 이슈

"시골취 위한 포켓몬고는 없다?"... '포켓스톱' 도농격차 불만

농정원, 농촌마을 백과사전 서비스
구축...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전국 3만여개 농촌마을정보를
한눈에

“시골쥐 위한 포켓몬고는 없다?”

... '포켓스톱' 도농격차 불만

인구밀집 지역에 아이템 보급소 몰려...美서도 '설국열차 연상 불평등' 지적



'포켓스톱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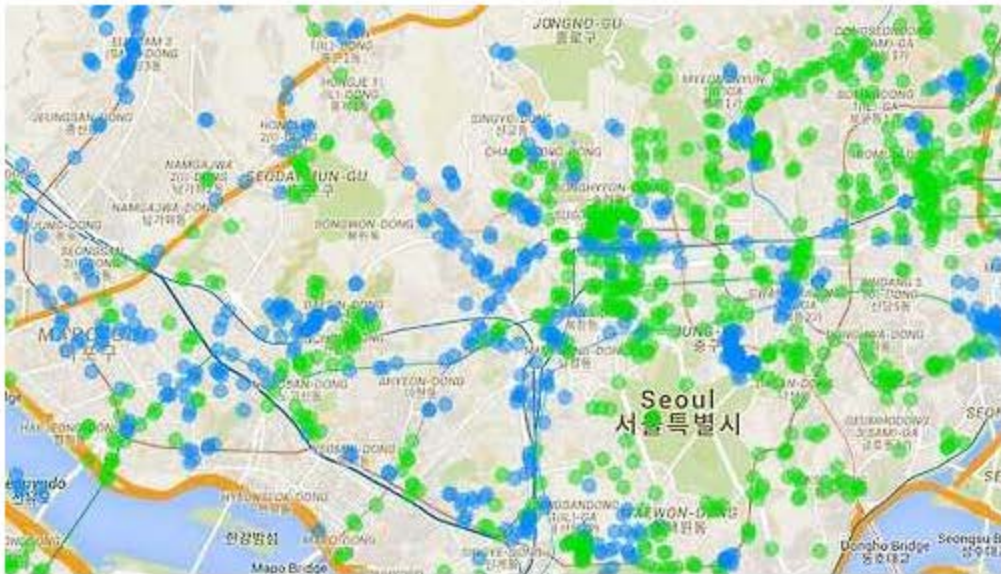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유명 모바일 위치기반(LBS) 게임 '포켓몬고'가 국민 게임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 사용자들사이에서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게임의 거점 역할을 하는 '포켓스톱'이 서울 시내 등 인구밀집지에 몰려 있고 교외나 지방에는 그 수가 너무 적어 '도농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실제 지형지물에 숨어 있는 귀여운 괴물인 '포켓몬'을 잡는 것이 기본 뼈대다.

특히 야외 조형물이나 호텔·카페 등에 세워지는 포켓스톱은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얻을 수 있고 포켓몬도 많이 나타나,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포켓스톱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포켓스톱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로 세워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이런게 '포세권'...서울 중심기에 포켓스톱 '뽁뽁' <<인그레스 포털 지도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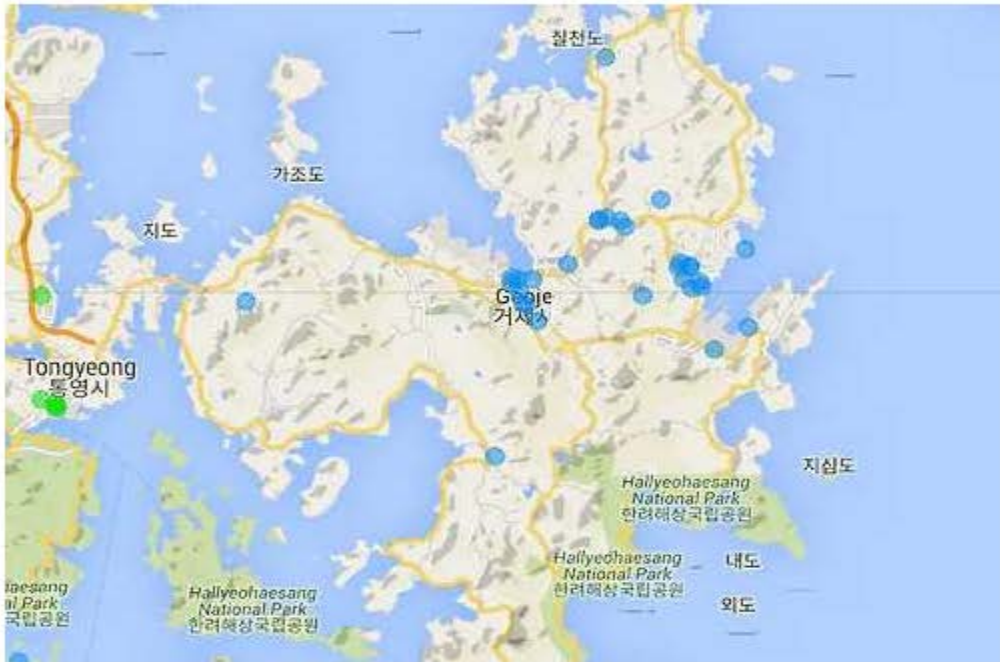
2일 연합뉴스가 포켓스톱의 국내 지역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 광화문이나 부산 해운대 등 도심지에는 포켓스톱이 뽁뽁하게 몰려 있지만, 충남·경남 등 지방에서는 포켓스톱 밀집지가 훨씬 드물었다.

예컨대 경북 봉화군이나 경남 거제시는 군·시 중심지를 벗어나면 포켓스톱을 찾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방 사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심지 거주자들은 직장·집 주변에 포켓스톱이 흔해 편하게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지만, 외곽 지역에 사는 사용자들은 포켓스톱을 찾으려고 먼 곳까지 '원정'을 가야 해 불편하다는 얘기가.

한 네티즌은 "'포세권(포켓몬과 역세권을 조합한 신조어·포켓스톱이 많은 지역을 뜻함)에서 멀리 산다는 사실 때문에 게임에서마저 빈익빈 부익부를 실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도시 사람은 동네 산책만 해도 포켓스톱에서 포켓볼(포켓몬을 잡을 때 필요한 아이템)을 수십 개를 얻는데, 시골에서는 포켓볼도 부족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야 할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거제시의 포켓스톱 현황 <<인그레스 포털 지도 캡처>>

포세권 도농격차 지적은 예전에도 있었다. 포켓몬고의 고향인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는 작년 여름 '포켓스톱의 지역 불평등은 영화 설국열차를 떠오르게 할 정도'란 게시물이 큰 화제가 됐다.

설국열차는 미래 열차 안에서 꼬리 칸에 사는 하층민과 열차 앞쪽 칸에 사는 특권층 사이의 투쟁을 다룬 작품이다.

포켓스톱이 드물어 포켓몬도 제대로 못 잡는 외곽지 유저들이 영화 속 꼬리 칸 빈민 처지와 비슷하다고 비꼰 것이다.

포켓몬고의 개발사인 나이엔틱은 애초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특정 지점에 포켓스톱을 신설해줬지만, 작년 7월 말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나이엔틱은 언제 포켓스톱 신설 신청을 재개할지를 밝히진 않았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엔틱은 포켓스톱의 위치를 정할 때 과거 자사 위치기반 게임인 '인그레스'(2014년작)의 데이터를 많이 참고한다.

인그레스 사용자가 과거 특정 지점을 게임의 거점인 '포털'로 정해놓으면 이곳이 포켓몬고의 포켓스톱이 될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외에서는 포켓스톱을 찾을 때 인그레스 포털 지도를 많이 쓴다.

지난달 24일 출시된 포켓몬고 한국판도 인그레스의 포털 위치를 고스란히 옮겨 포켓스톱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그레스는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포켓몬고와 달리 SF영화 풍의 딱딱한 분위기에 게임 방식도 복잡해 한국에서는 IT(정보기술) 종사자 등 일부에서 마니아층이 형성됐다.

이 때문에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포세권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동네에 인그레스 사용자가 없었다는 것을 탓해야 할 판'이라는 한탄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그레스 포털을 특정 지역에 대거 만들면 포켓스톱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도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다. 나이엔틱은 2015년 9월 이후 지금껏 인그레스 포털 신설에 관한 요청 접수도 중단한 상태다.

2017/02/02

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농정원, 농촌마을 백과사전 서비스 구축...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전국 3만여개 농촌마을정보를 한눈에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은 농촌마을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온라인 농촌마을 백과사전 서비스에 나선다.

농정원은 21일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높은 국민을 감안해 오는 28일부터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http://www.raise.go.kr>)에 전국 농촌마을 백과사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정원은 그동안 특히 귀농·귀촌과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전국 3만5695개 농촌마을에 대한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왔다. 정보망에는 행정리별 자연마을명, 마을 유래, 자랑거리, 인구, 빈집수, 주요 소득원 및 보육·교육·의료·문화·통신 시설 여부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가 망라됐다.

아울러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전국 농촌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농촌마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마을 외 주변체험마을, 인성학교, 레저지도, 지역개발사업현황 등 농촌현황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볼 수 있어 농촌생활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정원은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농촌마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인 농촌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정원은 앞으로 전국 농촌마을현황정보 DB를 확대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최신의 농촌마을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2016-12-21

헤럴드경제 황해창 기자